
2024년 개인도산 통계 비교 결과보고서



새 출발의 디딤돌 서울외생법원

2025. 4. 15.

서울회생법원



개인도산 통계 산출 결과 비교 보고

2025. 4. 15.

I. 배경

- 2019년도 하반기에 개인파산, 개인회생 분야의 통계 산출 관련 TF가 구성되어, 어떠한 통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할지를 논의하고 각종 통계 항목을 정하였음
- 이와 같이 산출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분야의 각 통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인도산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

II. 통계 산출 결과¹⁾

1. 채무자의 채무총액 관련

■ 산출 결과

항 목	액 수	
	개인파산	개인회생
채무자들의 채무총액 중위값	9,948만 원	9,474만 원

채무총액	비율(%)	
	개인파산	개인회생
5,000만 원 이하	24.92	11.8
5,0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	25.25	42.1
1억 원 초과 ~ 2억 원 이하	20.71	29.4
2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	9.04	7.5
3억 원 초과	20.08	9.2

■ 분석

- 2024년의 경우 “채무총액” 중위값은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약 1.0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
-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의 비율은 개인파산이 50.17%, 개인회생은 53.9%인 것으로 나타남
- 다만, 개인파산의 경우 3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았음

1) 본 보고서에서 “2024년도 통계”라 함은 서울회생법원에 2024년도(2024. 1. 1.부터 2024. 12. 31.까지)에 접수된 사건(즉, 사건번호가 “2024하단” 및 “2024개회”로 시작되는 사건)에 관한 통계를 지칭하는 것임.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e-Form의 형식으로 2024. 1. 1.부터 2025. 2. 28.까지 입력한 내용(파산선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입력한 내용으로 하였음)을 바탕으로 통계를 산출한 것임



2. 연령대별 등 통계

■ 산출 결과

연 령	비율(%)	
	개인파산	개인회생
29세 이하	2.07	13.4
30세~39세	5.20	28.4
40세~49세	14.58	28.8
50세~59세	28.99	20.9
60세 이상	49.14	8.5

성 별	비율(%)	
	개인파산	개인회생
남 성	58.39	56.8
여 성	41.61	43.2

■ 분석

- 개인파산의 경우 5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이 78.13%로 높은데 반해, 개인회생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비율은 29.4%에 불과하고, “30세 ~ 49세”인 채무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.2%를 차지함
-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모두 약 6:4의 비율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



3. 부양가족 관련 통계

■ 산출 결과²⁾

항 목	비율(%)	
	개인파산	개인회생
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	67.80	79.1

■ 분석

-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 비율이 개인파산은 67.80%, 개인회생의 경우는 79.1%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

2) 개인회생의 경우 단순 부양가족 수를 파악한데 비하여, 개인파산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을 구별하는 등 산출 항목을 달리하고 있어 단순비교는 불가능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의 비율만 기재하였음



4. 월수입 관련

▣ 산출 결과

항 목	액 수	
	개인파산	개인회생
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	50만 원	230만 원

월수입	비율(%)	
	개인파산	개인회생
100만 원 이하	72.09	0.2
100만 원 초과~150만 원 이하	14.23	5.3
15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	6.72	25.9
200만 원 초과~250만 원 이하	2.64	29.71
250만 원 초과~300만 원 이하	2.05	17.9
300만 원 초과	2.27	21

▣ 분석

-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월수입(중위값)이 개인파산에 비하여 4.6배 많았음
- 월수입 150만 원 이하 채무자들의 비율이 개인파산의 경우 86.32%로 대부분인 반면, 개인회생의 경우 5.5%에 불과함. 반면 월수입 200만 원 초과 채무자들의 비율이 개인파산의 경우 6.96%에 불과한 반면, 개인회생의 경우 68.61%에 이룸



5. 채무자의 재산 관련

▣ 산출 결과

재산 관련	비율(%)	
	개인파산 (재산총액)	개인회생 (청산가치)
500만 원 이하	29.32	39.4
500만 원 초과~1,000만 원 이하	13.08	14.4
1,000만 원 초과~1,500만 원 이하	9.26	11
1,500만 원 초과~2,000만 원 이하	4.90	7.8
2,000만 원 초과	43.44	27.4

항 목	액 수	
	개인파산 (재산총액)	개인회생 (청산가치)
재산관련 증위값	1,363만 원	854만 원

▣ 분석

- 개인파산은 재산총합계액(면제재산 포함)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,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만을 파악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



Ⅲ. 산출 결과에 대한 분석 정리

- 2024년의 경우 “채무총액” 중위값은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약 1.0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,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의 비율은 개인파산이 50.17%, 개인회생은 53.9%인 것으로 나타남. 개인파산의 경우 3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았음
- 개인파산의 경우 5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이 78.13%로 높는데 반해, 개인회생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비율은 29.4%에 불과하고, “30세 ~ 49세”인 채무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.2%를 차지함.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모두 약 6:4의 비율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
- “부양가족”과 관련하여, 개인회생의 경우 단순 부양가족 수를 파악한데 비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을 구별하는 등 산출 항목을 달리하고 있어 단순비교는 불가능하였음.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의 비율이 개인파산은 67.80%, 개인회생의 경우는 79.1%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
- “월수입”과 관련하여,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월수입(중위값)이 개인파산에 비하여 약 4.6배 많았고, 개인파산의 경우 월수입 150만 원 이하 채무자들이 86.32%로 대부분임. 월수입 200만 원 초과 채무자들의 비율이 개인파산의 경우 6.96%에 불과한 반면, 개인회생의 경우 68.61%에 이룸
- “채무자의 재산”과 관련하여, 개인파산은 재산총합계액(면제재산 포함)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,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만을 파악하여 산정하고 있어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